

“얼어붙은 민생 살리기 총력” 산불 예방·대응 평가 ‘최우수’

최경식 남원시장, 민생안정 종합대책 관련 간부회의서 강조

남원시 관계자는 16일, 최경식 시장(사진)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발생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시장, 실국소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종합대책 관련 간부회의를 열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으로 얼어붙은 민생을 살리는 데에 시가 앞장서서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 종합대책반을 구성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중이며,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 전체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기업, 농가,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촘촘한 대책 수립과 함께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례 제·개정과 예산 편성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내부적으로도 신속한 보고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유지하고 당면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나, 소비 진작을 위해 공직기강을 준수하면서 예정된 송년 행사와 화식은 정상 추진하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아너스클럽과 함께하는 김장체험·나눔페스티벌 성료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조성 최선

제1회 순창아너스클럽과 함께하는 김장체험·나눔페스티벌이 지난 14일 순창 장애인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페스티벌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된 혁신적인 나눔 행사로, 목송그룹, 남부대학교, 광주운안교회사랑부, 광주아파트연합회,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포함된 팀에게 참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부자들에게는 순창군민증과 순창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각 팀은 주최 측이 마련한 절임배추와 양념으로 20kg의 김치를 담갔다. 참가자들은 직접 담근 김치 중 10kg은 가정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0kg은 장애인우와 독거 어르신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



제1회 순창아너스클럽과 함께하는 김장체험·나눔페스티벌이 지난 14일 순창 장애인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는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김장 체험 후 직접 담근 김치와 수육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간중간 진행된 퀘리레이션과 순창 특산물이 포함된 경품 추첨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황의옥 순창아너스클럽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찾아오는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김장체험·나눔페스티벌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임실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임실군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서비스 신청률, 대상자 등록 건수, 예산 집행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등급에 올랐다.

심 민 군수는 “우수 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통하여 군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임실군, 도내 14개 시군 대상 종합 평가서 선정

임실군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잘 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산불 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홍보, 대비·대응, 협력도 등 8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임실군은 산불 예방 및 홍보, 산불 대비·대응, 산불 방지 협력도 등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216명을 현장 배치했다.

이를 통해 초기대응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했으며, 일반공무원 진화대 150명을 편성하여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산불통합진화훈련에 참여하는 등 산불재난 대형화, 연중화에 따른 산불 방지 협업체계 활성화와 산불 진화 능력 배양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이 밖에도 산불 조심 깃발을 설치하고 주요 교차로, 등산로, 관광지 등에 현수막을 게재하여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하는 것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 데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했다.

임실군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255건 99ha의 산불이 소실됐지만, 임실에서는 단 1건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했다.

심 민 군수는 “지구온난화로 산불 발생이 늘어나고 대형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공무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경찰서·자율방범대 ‘조금만 캠페인’ 전개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16일 임실시장 장날에 맞춰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죄예방 홍보활동으로서 ‘조금만 조심하면 범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보이스 피싱 조심! △음주운전 금지! △절도예방 만만!을 강조하며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말연시 강력사건 예방을 위한 형사활동과 지역경찰 취약지 순찰 활동 강화, 금융기관·금은방·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가시적·문제해결적 경찰 활동을 진행했다.

최규운 서장은 “임실군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능 간 총력대응을 통해 빈틈없는 치안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 신중년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교육 진행

남원시는 지난 13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 준비를 돕기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가 주관하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었으며, 교육을 통해 생애 설계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 중장년 경력 개발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합리적 재무관리의 중장년 고용동향을 통해 취업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종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신중년들이 가진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도록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미리 크리스마스 축제 성황리 개최

다양한 체험·공연 진행… 방문객 연말 따뜻한 추억 선사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2024 순창 미리 크리스마스 축제’가 방문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주목받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효테마파크는 겨울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연말의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아울러, 호묘관 2층에서 진행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크리스마스 마카롱 만들기, 미니 트리 만들기, 워터볼 만들기 등은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이번 행사에 가장 인기 있었던 공연은 재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공연이었으며,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고고관 1층의 도네이션 플리마켓은 지역 기관과 개인들의 기증 물품



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크리스마스 체험, 마을투어 프로그램, 추억의 교실 등 다양한 코너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했으며,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장류박물관, 흥매관 투어와 인생네컷 촬영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했다.

순창발효관광광재단 신윤숙 대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순창발효테마파크의 매력을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 자원을 결합해 더욱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